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8.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요? 교회를 다녀도 못 갈수 있다. [마 7:21]

♣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요? 이 질문에는 3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①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인가?
- ② 천국은 좋지만 교회는 싫고, 다른 종교나 방법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가?
- ③ 천국은 교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말인가?

I 천국의 실제적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이사야 11:6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65:17~18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4 읽어봅시다.

누군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방금 읽은 성경구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봅시다.

천국은 (각자 적어보기)입니다.

♣ “천국은 없다. 있다면 보여 달라” 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줄까요?

사람이 만든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뜻대로 살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좋은 나라가 믿어진다면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

II ‘교회를 다닌 다는 것’ 그 실제적인 의미를 정리해봅시다.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 들락거리는 것이 교회를 다닌 다는 것일까요?

- ① 교회를 다닌 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운) 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②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 즉 (성취)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지성과 영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형상은 입혀지지 않습니다.

③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증언을 봅시다.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마 7:21

1) 주여 주여만 하는 교인

: 이들은 가짜교인 즉 (문화적 종교인) 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껍데기는 신자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 군대귀신 [막 5장 8~13절]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며, 예수님을 두려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영들은
 귀신입니다.

2) 주여 주여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 누군가 당신에게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간다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다니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교회 밖에서 가르침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한 공동체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경험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

누군가 “요즘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가짜 신자입니다
 “맞아요, 제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집사님 나를 위해 도와 주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1)요한복음 1:12 ~13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2)야고보서 1:18 읽어봅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 된 사람입니다.

3)로마서 8:15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는 양자가 되는 법적 권리를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한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 전전인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며
이 양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필립스 브룩스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순간 나는 나를 하나님께 (능동적) 으로 맡겼습니다.

능동적으로 나를 맡겼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루어 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목표로 가득 차 있고 천국은 성취로 가득 차 있다

-존 로저스-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A. 토저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하워드

당신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심해서 천국에 가는 자는 없다 -무디-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행)까지 해야 합니다.